

전주비전대, 지역 동반 성장 이끈다

전북대 등 도내 대학과 협력 공유·협업 모델 구축

전주시·남원시와 협력해 신산업 인재 양성 추진

LX 공간정보연구원 등과 협력,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먼저 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주기전대, 전북과학대 등과 협력해 대학 간 공유·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권 대학들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지역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특히, 전북과학대 및 전주기전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전주시 및 남원시와 협력해 지역 기반 직업교육 및 신산업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와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시와는 미용·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평생직업 교육 거점을 조성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주군과의 협업을 통해 무주군민의 로컬브랜딩 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

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LX 공간정보연구원, (사)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협력해 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X 공간정보연구원과는 공간정보, 인공지능(AI), 드론 등 디지

털 전환(DX)융합기술을 활용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며, (사)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는 오토바이 정비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병훈 총장은 “대학, 지자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RISE 사업을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도내 고교생

수학 학력 신장 '온 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생들의 수학 학력 신장을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수학 마스터즈클럽은 수학 교사들이 학생들을 4~5명의 작은 집단으로 구성해 수능형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일반계 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교사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별 학습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능형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8월에는 집중 학력신장 캠프를 열어 실전 감각을 키우고 학습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항 제작 역량 강화 연수 △교사 문항 개발 지원단 운영 등 교사들의 수학 평가 문항 제작 및 출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수학 학력 신장 지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 실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도내 수학교육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기술직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 기술 향상을 위해 '2025년 기술직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술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 부설 공사 예방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국도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며,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비롯해 정기 안전 점검, 건설 감리, 전기 감리,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전문 교육 과정이 포함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각 교육 일정에 맞춰 위탁 교육기관에 신청한 후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의 학교 시설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설 공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가 지역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제공)

산불 위기 속 문화재 보호 신속 대응

전북대 산학협력단 운영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최근 산불 발생한 김제·정읍·고창 등 출동해 긴급 보호

정읍 금동 느티나무는 화재 손상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가 지역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4~25일 김제시 금산면, 정읍시 소성면, 고창군 성내면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 현장 주변에 김제 원평 집장소터, 고창 백관수 선생 고택, 정읍 금동 느티나무, 고창 황윤석 생가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과 자연유산이 많았다.

특히 이들 국가유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과 수령이 오래된 자연유산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컸다.

이에 센터는 산불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소방당국과 협력해 문화유산 시설물의 지붕에 소방수를 살포하는 등 긴급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남해경 센터장은 “산불 발생 직후

부터 국가유산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었다”며 “신속한 현장 파악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최근 산불 재난 위기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소방시설 긴급 점검 및 국가유산 보호용 방열포를 구입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읍 금동 느티나무는 화재로 인한 손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센터는 지난 19일 익산 문수사에서 목조문화유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신규 영양교사 업무 지원 나섰다

저경력 영양교사 위한 학교급식 업무 설명서 2차 개정판 제작

실무 중심 직무연수 지원·학교 적응력 향상 위한 멘토링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규 영양교사 업무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신규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운영과 영양·식생활교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경력 영양교사를 위한 학교급식 업무 설명서' 2차 개정판을 제작·배부했다.

학교급식 업무 설명서에는 △시기별 추진업무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학교급식 운영관리 △학교 누리집 관리 △나이스 식단작성 및 품의 △공문서 작성법 및 K-에듀파인 업무관리 등 신규 영양교사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상세히 담겼다.

또한 실무 중심 직무연수도 지원한

다. 영양교사로 첫발을 내딛는 신규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운영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교급식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지난 7일에는 식단 작성 및 식재료 품의 등 급식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나이스 직무연수 운영했고, 오는 28일에는 학교급식 위생 관리 연수를 통해 산별 영양교사들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분임별 지도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4월 8일 왕의지밀에서 '학교급식 컨설팅단 발대식 및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한다. 산별 영양교사들이 신규 영양교사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 1:1멘토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2년부터 실시해 온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컨설팅'이 올해도 지속된다. 학계 및 현장전문가(수석교사, 산별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은 학교급식 운영, 영양·식생활교육, 급식시설·설비관리, 학교급식 사단관리 등을 지원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3년째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 컨설팅과 멘토링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신규 영양교사들이 배치된 학교에도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컨설팅단과 멘티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컨설팅 표준 지침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제 학교로 돌아와 의료인 꿈 키워달라”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의대생 등에 서한문 보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의대생들에게 학교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미 복귀 시 기존 입장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도 분명히 했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 25일 의과대학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로 활기차야 할 의과대학 교정이 적막한 현실로 인해 충장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이제 학교에서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키워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부모들에게도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와 학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의학교육 정상화의 시작이자 세계 수준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길”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의료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양 총장은 올해부터 24학번과 25학번이 1학년 과정을 함께 이수하게 됐으며, “올해는 24학번이 25학번보다 6개월 먼저 졸업하도록 분리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고사와 전공의 시험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협의를 마쳤다”면서 “대규모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등 질 높은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에 나설 계획도 재차 밝혔다.

양 총장은 “등록 및 휴·복학, 수강신청, 유급·제적 등 학사 업무와 관련해 학칙과 학사운영 규정 에 의거해 의과대학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당장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교원노조 단체교섭 재개

전북교육청, 전북교사노조·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교사노동조합 및 전교조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단체교섭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은 실무교섭이 진행되다 노조 측에서 집행부 교체 등의 사유로 교섭 연기를 요청하면서 잠시 중단됐었다.

노사 양측은 최근 실무협의를 거쳐 교섭 일정을 확정하면서 27일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정책 및 행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 등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우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시대적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노조와의 소통을 통한 전북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 인재 양성 산학협력 모델 구축

전북대 양오봉 총장,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만나 협력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포스코(대표이사 이희근)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희근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만나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표이사는 전북대 금속학과를 졸업한 전북대 동문으로, 후배들의 성장과 모교 발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양 총장과 이 대표는 우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확대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협력키로 뜻을 같이 했다. 전북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신규 사업 기획에도 협력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사업 및 연구과제 발굴과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포스코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연구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최우수’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2024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26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들이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표 지원활동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입주기업 인프라 지원활동 △매출/고용 창출 성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 인력 확충 △투자유치 성과 △정부 및 지자체 연계 지원 실적 △내·외부 네트워크

크 교류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상우 센터장은 “이번 S등급 획득은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과 입주기업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전북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ICT, 바이오,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